

당신의 子女! 나이는 몇段階?



孫 哲

“수평적인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지요.”

먼저 수수께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3형제가 한밤중 심심산증을 견고 있는데 느닷없는 사체 일구가 오솔길을 막고 있더랍니다. 놀란 그들이었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고 그중에서도 여유를 보인 맏형이 이 사람이 죽은지가 얼마나 되겠냐며 동생들에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당돌하게도 막내가 대뜸 이틀쯤 됐겠네요 하는데 둘째가 아니다 최소한 두 달은 됐다 하더랍니다. 이를 듣고 있던 맏형이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태는 됐겠다 하며 씩 웃더랍니다.

이상하게도 이 3형제의 추측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이로 미루어 한날 한시에 탄생하였다는 쌍둥이의 나이가 극단에 이르러서는 한살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겠습니다.

우리 한국식 연령계산법은 서양처럼 만(滿)으로 하는게 아니라 탄생하자마자 한살을 주며 설을 설적마다 한살씩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양사람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을 셈한다면 실제로 우리 연령법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고 농도 합니다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일수로 따져 이틀째부터 729일까지가 두살 일 수 있다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양에서는 인간의 생일을 엄마로부터 태어난 날로 따질게 아니라 차라리 아이를 임신한 날—이를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은 아직 없고 약 14일의 오차를 가지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을 생일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뭏든 한 아이가 서기 몇년 몇월 몇일날 탄생하였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식이 됐든 서양 식이 됐든 셈해내는 나이를 달력에 의한 나이라 하여 역령(曆令)이라 부릅니다.

이에 대해 인간성장학(人間成長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발육연령(發育年令)이란 말을 쓰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골령(骨)이라던가 치령(齒)이라하여 X사진을 찍은 뼈나 혹은 이를 가지고 그 아이의 나이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알기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골령에 있어서 완전히 어른이 된 상태를 100점으로 해놓고 이 아이는 현재 100점에 불과한 어린아이다 또는 90점이 넘는 어른이 거의 다 된 청년이다 등 어려운 말로는 성숙도(成熟度)를 헤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한참 자라고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는 길목의 어디에 와 있는가 혹은 어느만큼 어른이 돼 가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정확히 알아내는 연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아는 12세경(여아는 10세경)부터 시작하여 20세경(여아 18세경)에 끝나는 소위 청년기 격발현상(靑年期激發現象)에 대해서입니다.

어른들은 남녀간에 언젠가 한때 스스로 거쳤고 경험한 일들입니다만 여아는

빠르면 국민학교 5년경부터 남아는 중학교 1년경부터 소년 소녀의 티에서 점차로 벗어나 갑자기 키 무게 체격 등이 무럭무럭 자라 어른스럽게 돼버리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남아는 남자다움게 여아는 여성다움게 되어가며 음성이 변하고 여아에서는 초경(初經)이 나타나고 남아는 초정(初精)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여아 초경연령은 14.0세 남아의 초정연령은 15.0세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빨라져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를 남아의 얼굴모습 체구 특히 여아의 유방 남아의 외음부를 5단계로 나누어 이 아이의 제 2성징(性徵)이 몇 단계에 있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소녀는 1단계 어른이 5단계이며 격발기에 있는 청소년은 이 사이 어디엔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심리학적으로는 점점 개성이 뚜렷해지며 독립된 한 인간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발육연령은 앞서 말씀드린 역령과 대비하여 여러가지 흥미로운 소위 개인차이(個人差異)를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쉽게는 중학교 1년생의 평균연령을 13세로 보고 그 아이들의 성기(性器)를 보면 한마디로 아직 고치(1단계)가 있는가 하면 어른과 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제 5단계)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아의 초경연령을 예로 들면 빠른 아이는 만10세 즉 국민학교 5년째 있는

가 하면 늦은 아이는 여고생이 된 만16세에서 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발육연령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 고등학교에서 동갑장이 한반이면서 생각과 관심사가 너무나 다른 어른과 소년 소녀가 함께 섞이어 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같은 연령인데도 발육연령의 개인차이 때문에 학습능력 학습태도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 등에 여러 가지 교육적 실제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인간성장학에서 보는 성차(性差) - 여아가 약 2년 빨리 어른이 되는 사실 - 그리고 또 연차적추이(年次的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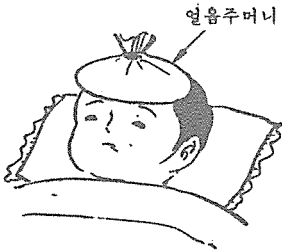
移)라 하여 인간의 싸이즈가 전보다 크고 또 빨리 어른이 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신 자녀의 나이를 달력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가끔가끔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 젓가슴과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내려다보고 발육연령은 몇 단계 인가 어느만큼 어른이 돼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는 시기인가를 정확히 헤아려 오지게만 여기지 마시고 교육문제 이성문제 영양문제 장래문제 등등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수평적인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지 않으시렵니까!!

(필자=전남의대 명예교수)

생활과학○

● 어린이의 응급처치 요령



○열이 날때

열이 나면 머리 위에 물주머니나 얼음주머니를 대주고 다른 곳에도 이상이 있나 없나 살핀 다음 한번쯤 관장을 시켜 변을 보도록 한다.

관장을 하면 열도 내릴 수 있고 또 변의 이상이 있는지도 볼 수 있다.

함부로 병을 판단하여 해열제 같은 것을 먹이는 것은 금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처음으로 영아의 치아가 날 때 열이 나는 수도 있고 이밖에 다른 원인으로 열이 나는 수도 많으니 반드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

영아나 유아는 대체로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므로 다소 열이 있더라도 보아서 분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상시와 달리 기분이 좋지 않고 안색이 나쁘거나 눈이 발갛게 된 경우나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거나 밖에 나가 놀지 않는 경우 또는 몹시 피로한 기색이 보이거나 할 때는 체온을 재어보고 열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수가 많다.